

전남 서부권

'바다분수 유료화' 목포는 고민중

관광수익 위해 해상 관람석 가림막 설치 검토

컨텐츠 부족.. 자칫 거대한 흉물될까 신중론도

전국 최초 해양을 아룬수이자 목포의 랜드마크인 '춤추는 바다분수'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이를 고민하고 있어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목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삼학도로 이전해 유료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높지만, 목포시는 현재 위치인 평화광장에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방으로 터진 상태서 어떻 게 무료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을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는 분수 앞에 660m의 해상무대와 함께 관

람석에는 지붕을 뒀고 양 날개에는 바다 쪽으로 뛰어나오는 반달형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우선 데크와 평화광장 사이에 있는 2차선 도로에 범을 세운

뒤 도로 위로 9.5m 가량을 점용한 2

층 관람석(F1경기장 형태)을 설치하고, 기설치된 데크는 리모델링해 1층 관람석으로 만든다. 이처럼 2층 관람석이 설치되면 규모가 약 1만 2천석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유료화를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의 불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의 역량으로 불 때 분수 공연만으로는 40분을 넘기기 어려워 새로운 테마를 구성하는 것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범을 설치한 공간에 폭 2m에 길이 330m의 부스를 설치해 목포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물体质 등을 상설 개최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중간 중간에는 문화 예술회관 수장고에서 잡자고 있는 예술작품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상에 설치돼 개방돼 있는 바다분수를 유료화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할 경우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함평군, 동함평 산단 토지보상 본격 착수

학교·대동면 일대 79만여㎡ ... 2014년 준공

함평군이 동함평 산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광주~무안고속도로 동함평 IC 부근인 학교면과 대동면 일대 79만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토지보상 공고를 냈다.

군은 이달 중순 산단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동함평

산업단지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아 내년 3월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까지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성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며, 2013년에는 산업용지를 선분양해 201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군은 동함평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80여 개의 업체 입주로 2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거주인구 유

/서부취재본부=황운혁기자 hwang@



김현술씨의 '대교의 일출'.

진도 관광 사진 공모전 '대교의 일출' 금상

진도군 주최로 열린 '2011 진도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에서 김현술씨의 '대교의 일출'(사진)이 금상에 선정됐다.

진도군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홍보·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1월 11일까지 진도군을 소재로 촬영한 사진을 공모한 결과 180점이 응모해 이 가운데 입상·입선작 40점을 선정했다.

온상은 하옹순씨의 '한번 깊어!', 백금심씨의 '조도의 섬들이 차지했으며, 동상은 박병관씨의 '모세의 해수욕장', 이동현씨의 '멸치 건조', 백종갑씨의 '꽁풀', 등이 차지했다.

군은 앞으로 입상·입선작품을 각종 관광 홍보물 등 진도군 관광마케팅 활동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호 목포대 학생생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지역단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향토문화의 개발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목포시가 평화광장앞 바다에 조성된 '춤추는 바다분수'의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시원하게 내뿜는 바다분수를 바라보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 시민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수협, 외국인 선원들과 아름다운 동행

수협이 국내 수산업 발전에 한 축을 맡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화제가 되고 있다.

수협은 1일 목포시 해안동에 위치한 안강망수협 목포지소를 방문해 외국인 선원들을 격려하고 방한복 1000벌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구 수협 중앙회장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추위에 익숙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는 더 추운 법인데 추위를 이기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방한복을 준비했다"면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증정식에 함께한 중국인 선원들은 "외국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어 힘이 난다"며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수협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온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9일에는 외국인선원 7명에게 고향방문을 위해 왕복항공권과 휴가비를 지급했다. 이 밖에도 매년 '외국인선원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해 이들이 한국문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오 있다.

이에 앞서 수협은 1일 목포해양대 체육관에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이종구 수협 중앙회장 등 관내 어업인 600여명이 참여해 해난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구명동의 착용 생활화 등 유사시 한 명의 생

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현장교육 위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구명장비 전시 ▲해난사고 사례 사진전 ▲해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업인의 대처요령 ▲선박화재 시 대처요령 ▲구명등의 등 안전장비 시연 등 함께 마련됐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월 1일 전국 16개 항·포구에서 자체체, 해경, 해운조합, 어업인 공동의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을 개최, 안전조업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목포대-진도문화원 향토문화 공동 개발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향토문화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목포대학과 학생생활관과 진도문화원(원장 박정석)은 최근 진도문화원에서 문화교류와 향토문화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생활관은 지역문화경성의 근간이 되는 문화유적지 탐방과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진도의 역사와 문화를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와 지역향토문화 개발에 공동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목포대 학생생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지역단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향토문화의 개발

과 향토문화의 상품화, 산업화, 세계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슬로시티 신안 증도

1기구 1자전거 갖기

신안군 증도면은 지난 2007년 '자전거의 섬'으로 선로한 증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1기구 1자전거 갖기 운동'을 벌인다.

군은 지난 4월 340대에 이어 최근 216대의 자전거를 추가 보급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증도면을 '자동차 없는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 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님기자 wncho@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자원보호단

공원-섬주민간 가교 역할 톡톡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상공원 자원보호단'(이하 자원보호단)이 공원내 주요 자연자원 보호는 물론 국립공원과 지역주민 간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박용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간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등 3개 공원 5개 사무소에서 이정 등 주민협력자로 구성된 '해상공원 자원보호단' 443명이 활동 중에 있다.

/서부사무소 자원보호단은 올

한해 순찰이 어려운 해상공원 15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공원내 주요 자연자원 보호는 물론 국립공원과 지역주민 대상 공원 홍보·간담회 147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박용규 서부사무소장은 "해상공원 자원보호단 재도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도 자연보호활동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님기자 wncho@

나주혁신도시 전문

솔로몬은

전문가의 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 상업용지 • 주차장용지
• 이주주택지 • 협의주택지

전국 혁신도시 투자전문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10-2609-5888

010-3153-4242

위치 : 산포면 진파리리 소부근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 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기용도 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치회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 준주거지역 (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회정동, 광산구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 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 5천만원
-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 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 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 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 8억

<급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 본 광고물건은 전 속 계약 된 물건임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가구주택

- ▶ 북구 문흥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75평 건평130평 김정기3억3천만 최저가 2억3천만

농지 및 토지

- ▶ 나주시 봉황면 육곡리 과수원3,600평 김정기 2억3천만 최저가 1억6천만
- ▶ 회순군 이양면 오류리 농지(관리지역) 1880평 김정기 1억1천만 최저가 7천6백만

전원주택

- ▶ 담양군 남면 구산리 단독주택 대지152평 건평43평 김정기 8천7백만 최저가 6천2백만
-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단층주택 대지927평 건평42평 김정기 1억7천만 최저가 1억2천만

근린용지

- ▶ 남구 백운동 4층신대로변 대지70평(준주거지역) 김정기 2억9천만 최저가 2억

토지매매

-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
-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원동방병원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